

# 시민 삶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정책 펼친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김제시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약속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정성주 김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반환점을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2년의 비전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그간 소신껏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민이 바라는 변화와 시민이 원하는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 ▲민선 8기 김제시정을 돌아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대표 성과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제2 특장차 전문단지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받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시 최초, 대기업 (주)두산 유치 등 총 23개 기업 6,883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88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출생을 증가와 인구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8개 분야 115개의 김제형 맞춤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건설 등과 같은 주거 여건 개선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치(0.72)의 2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1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타운하우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명품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김제시 인구 유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선 8기에는 꽃빛드리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등 새롭게 선보인 축제로 시민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 6월에는 1,300년 된 고찰인 진봉산 망해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민선 8기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밀착 복지행정을 펼쳤다. 민선 8기 정성주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만족도가 99.5%로 나타났으며, 아이들이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월평균 이용 건수가 450여 건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해 일일 평균 350명분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김제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른바 ‘난제사업’ 해결에 집중해 왔다. 난제 해결 1호라고 할 수 있는 구)동진강 휴게소는 지난 12년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는데 국도비 36억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김제시장은 민간사업자 협약과 기반시설 예산 확보로 올해 말 재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곳곳에 산적해 있는 난제사업들을 패도나마의 각오로 직접 챙기고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첨단산업 선도

김제시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지난 20년간 방치해 왔던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산업 분야에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착공식을 개최해 대한민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새롭게 조성, 김제시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단계에 접어든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는 내일 있게 조성해 새로운 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상향 지원,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민선8기 전반기 김제시정

#### 2년 연속 국비 1조원 확보

#### 미래모빌리티 육성 발판 마련

####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전국 유일

#### 전북 최초 천사무료급식소 유치

#### 동진강 휴게소 리모델링도 마쳐

###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산업 분야 성장동력 확보

#### 특장차 전문단지 새로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즌2 추진

#### 주민 주도 관광자원 발굴·육성

####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 강화

###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탄탄한 민생 경제 도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김제시 민생경제의 초석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 인증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청년, 신춘년, 노인, 취업 취약계층,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발굴과 매칭, 근로자 고용 상담, 고용 환경 개선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 인차로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창업·취업·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한다.

### ▲스마트한 농어업, 매력적인 농어촌 라이프 실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시범사업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즌2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래 첨단 스마트농업을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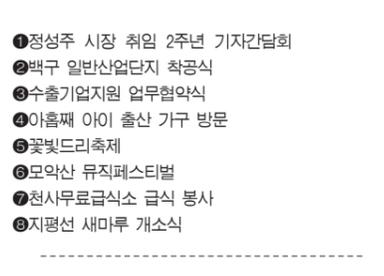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생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기계 실증·검인증·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농기계 산업을 집적화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라작물 직접지불사업, 농민 공익수당, 무기질비료 인성분 차액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영농정착금 지원, 영농기반 인차로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더 쉽게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 첨단 양식시스템 기술 교육 및 창업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 어업인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김제시를 내수면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새로운 내일로 비상하는 해양 항만 도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김제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판인 새만금에 대해서는



- ①정성주 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 ②백구 일반산업단지 착공식
- ③수출기업지원 업무협약식
- ④아홉째 아이 출산 가구 방문
- ⑤꽃빛드리축제
- ⑥모악산 뮤직페스티벌
- ⑦천사무료급식소 급식 봉사
- ⑧지평선 새마루 개소식

미래세대와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속히 김제관할로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는 한편 심포 마리나항만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 등 김제시 전략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인근 유사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7년 김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을 대비해 김제시 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 골드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 특성화항만 조성과 신항만 배후부지 확장, 국가어항 조성 등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책 반영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시민의 자리가 되는 도시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요촌·신풍·성산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춘화·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산·김제역 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선제적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 힐스테이션 시업사업은 편리하고 품격 있는 거주 공간으로 조성해 지방 이주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강화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더 멀리 보고 더 품어주는 교육 복지 도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학교의 자생력 강화와 생활인구 확충에 힘을 기울인다.

전국 제일의 어른심검 도시 도약을 위해 시장 직속 어른심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백세 장수 어른심 축하 물품 지원사업과 어른심 건강진단 장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김제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산후 조리 병비를 최고 100만원씩 식재료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해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등 탄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점일제로 운영해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내에 부재한 장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정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도내 최초로 김제형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정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일상에 섬표를 더한 문화관광체육도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새롭게 구성해 주민 주도형으로 관광지원을 발굴·육성하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악산도립공원 일원에 금평결길 야간 명소화, 금평저수지 파빌리온 조성 및 공연 콘텐츠 운영 등 모악산을 새로운 명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김제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해 축제의 질적 성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 꽃빛드리 축제,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등 세계적 내내 현장에서 효용을 얻었던 관광 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확대해서 김제시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지평선 새마루 운영,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와 김제스포츠클라이밍장, 김제 스포츠 등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도시 조성

소통은 ‘김제 개발의 시계’를 앞당길 핵심 열쇠라는 대전제 아래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대시민 민생경제협의체, 시민 싱크 탱크를 활용한 사색연구모임, 열린 시장실 운영 등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김제 발전의 뿌리를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에너지이자 자양분”이라며 “민선 8기의 정책에 보내주신 애정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 발 더 뛰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향후 2년의 각오를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